



# 賃金高率引上・生産性제고成功

◀ 調 査 部 ▶

1972년은 우리나라 國家발전에 주요한 轉換點을 가져온 특기할만한 해였다. 全國적으로 메아리치기 시작한 새마을運動은 오랫동안 貧困과 無知속에 참 체해 왔던 우리農村에 勤勉·自助·協同하는 精神을 불려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運動이 이땅에 點火된후 수 3년내에 우리 國土는 눈부신 속도로 변모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未來指向의인 事業의 成果는 이제 工場과 職場에서 혹은 都市에서 軍部 및 學園에 이르기까지 그 餘勢를 몰아 底邊을 擴散시켜 나가고 있다. 오래지 않아 우리國土는 새마을동산 혹은 새마을 作業場으로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工場새마을運動도 農村새마을運動으로부터 點火되어 1975년부터 企業과 工場에서 職場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展開되고 있다. 農村새마을運動이 農村所得 增大, 環境改善, 生活改善등을 통하여 農村近代化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工場새마을운동은 經營共同體 理念의 浮刻, 韓國的企業倫理觀의 확립, 그리고 經營管理의 改善을 통하여 生産性의 向上, 從業員所得增大 및 地域社會開發로 연결되는 一大 躍進運動으로 기업단위로 國力組織化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 據點을 연결시켜 나가는 韓國版 뉴 프론티어(New Frontier)運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企業이란 언제나 挑戰과 시련에 부딪치게 마련이지만 현대처럼 그 도전과 시련이 다양하고 심각한 매도 없었던 것이다.

個人的 生存경쟁이 날로 치열 해지는것 이상으로 기업의 생존경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生産性향상이나 原價절감 문제가 물론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眞實해지고 있고 내일이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번영 아니면 倒産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종업원의 임금인상, 厚生복지향상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圓만한 勞使傭조체제를 이루지 못하는

기업의 장래는 암담할 뿐이다.

또한 이같은 企業內部的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對外依存度가 높아지면서 국제경쟁력과 直結되고 있다.

기업의 生存과 번영은 對內的인 문제해결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外國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이겨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국면에 이른 것이다.

生産性향상 原價절감 品質향상이 국제경쟁력의 3大要素라고 한다.

이 3대요소는 생산공장의 作業환경개선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넓은 기계가 새 것스노 머기기가 아고 高品質의 厚生복지와 임금이 좋아져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企業이 잘되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企業살리기 운동인 工場새마을 운동이 시작된지도 올해로써 3년째로 접어들었는데 韓國食品工業協會 산하 회원사인 △高麗人蔘製品(株) (代表·洪思豊) △大一퍼모스트(株) (代表·金永璠) △東立産業振興(株) (代表·金在植) △東邦油糧(株) (代表·申明秀) △東西食品(株) (代表·李仁植) △東洋製菓工業(株) (代表·李泰星) △롯데工業(株) (代表·辛春浩) △롯데製菓(株) (代表·劉彰順) △롯데七星飲料(株) (代表·劉彰順) △味元 (代表·韓玄錫) △寶樂香料工業(株) (代表·鄭奎榮) △三岡産業(株) (代表·金銀柱) △三立食品工業(株) (代表·許昌成) △三立食品(株) (代表·金政云) △三養食品工業(株) (代表·全仲潤) △샘표食品工業(株) (代表·朴奎會) △서울食品工業(株) (代表·徐鶴澤) △第一香料化學(代表·李承栢) △朝興化學工業(株) (代表·威亨俊) △株式會社덕키 (代表·許愼九) △韓國콘티넨탈食品(株) (代表·崔淳永) △韓國海藻加工(代表·白羽元) △漢陽食品(株) (代表·金新正) △해태製菓工業(株) (代表·朴炳圭) 등 24개 업체는 工場새마을운동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업체들은 生産性향상, 品質개선, 破損방지등 生産面과 임금인상등 종업원복지향상면에 주안점을 둔 올해 課題別사업표를 확정, 추진중에

있고 근검절약의 새마을인간훈련과 정신교육 강화를 기본목표로한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일부업체는 올해를 공장새마을운동의 저변대 및 土着化단계로, 내년을 成熟단계로 각각 설정하고 각부서별로 올해 새마을 綜合사업계획서를 작성, 提出토록 해놓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막대한 예산과 人力을 동원, 올해 공장새마을운동을 社內 그 어느사업보다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1~2년동안 기대이상의 큰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장새마을운동의 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공장내 환경개선에서부터 節電·節水등 낭비제거, 원가절감, 품질향상등 生産性향상, 종업원복지증대와 인간관계개선등이 對內的인 과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對外的인 과제로는 주변도로의 補修整備, 인근부락 또는 학교와의 자매결연, 불우이웃돕기등 손쉽게 하기쉬운 것만도 헤아리기 어려울만큼 많다. 이같이 많은 과제들을 社長을 頂點으로 간부사원에서부터 말단 기능공에 이르기까지 전종업원이 한마음을 이뤄 추진하고 있다.

회원업체에서 벌이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과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종업원 提案制度 실시

공장새마을사업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作業單位別 分任討議를 통한 從業員提案제도이다. 전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되어있고 課題가 위에서 내려오는 下向式이 아니라 밑에서 제기되어 위로 올라가는 上向式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우려도 없다. 또 제안되는 과제가 原價절감이나 생산성향상 등 생산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근면, 自助, 협동등 새마을운동 기본목표를 모두 커버하고 있다. 요컨대 전체 종업원을 중심으로 공장새마을운동이 社內에서 社外로까지 확산, 발전되도록 노력하고있는 것이다.

이같은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라 作業單位別 分任으로 결성되어 있으며 이 分任들은 작업시간외의 여가를 이용, 수시로 공장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새

마을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새로운 과제를 제안하고 협의한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것은 월 1회 課長주제로 열리는 課別分任討議에 붙여지고 이것을 다시 隔月로 열리는 部長주제 분임토의에 회부되는데 이 豫選과정에서 통과된 모든 提案들은 分期別로 열리는 全社分任討議에 상정돼 회사의 정식 새마을사업으로 확정, 종업원에게로 되돌아 가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종업원 제안제도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새마을 研修教育 참가

工場새마을운동은 종업원들의 價値觀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수 있다.

지금까지 알고있는 知識과 常識을 충동원하여 정해진 목표를 향해 과감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態度의 變化를 위해 工場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업체들을 종업원들의 새마을研修교육에 남다른 열성을 보이고 있다.

最高經營者와 任員들은 물론 部·課長급의 中間管理者들은 대부분 한번이상씩 새마을研修교육을 받은 경력이 있다.

水原새마을研修院을 비롯,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각종 教育기관과 기타 私設교육기관에 工場새마을지도자들을 정기적으로 파견, 새로운 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 자체교육기관을 새마을研修教育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社長을 비롯한 任員陣과 部·課長級들은 모두 새마을研修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部·室단위의 새마을지도자들은 2~3차례이상씩 새마을研修교육을 받았다.

특히 工場새마을운동을 전담하고 있는 관계자는 전국의 새마을교육기관을 거의 빠짐없이 찾아다니며 교육을 받았다.

일반 새마을지도자들같이 남달리 집념과 의지가 강한 H會員社의 관계자들을 새마을研修교육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사고방식자체가 바뀐것 같다고 술회

한다.

3천명이 넘는 종업원들을 새마을운동에 효율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선 새마을研修교육의 꾸준한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의 희생적인 先導역할이 工場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가름하는 요소가 된다고 그들은 강조한다.

### 原價절감·生産性向上

原價절감이나 品質 및 생산성향상은 모든 기업인 | 언제 어디서나 부딪치는 과제이고 그 타결방안도 여러모로 시도되고 있지만 특히 공장새마을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돈은 쓰고나서 벌기가 쉽다는 逆說을 입증하듯 종업원의 임금인상이 先行되고 厚生복지제도가 크게 개선된 뒤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지난 74년 공장새마을운동을 시작한 S會員社는 우선과제인 원가절감이나 생산성향상을 종업원에 독려하기에 앞서 우선 종업원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그리고 새마을食堂을 개설, 무료給食을 시작했으며 장학금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외부강사의 초청, 모범새마을부락 견학등으로 정신적인 면에서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 造成단체를 거친 후 본격사업에 들어갔는데 핵심과제는 물론 원가절감과 생산성향상이었다.

우선 작업단위별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실시한 결과 당초 기대이상의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는 것, 종업원의 離職率둔화, 결근율감소등 눈에 안보이는 效果도 컸다는 것이 S社측의 설명이다.

T會員社도 공장새마을운동을 생산성향상운동으로 결부시켜 추진, 다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종업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동정신의 고취, 그리고 자발적인 작업환경 개선등을 이룩하기 위해 종업원 提案 제도인 總員參加운동을 전개해서 전 종업원으로 하여금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이들 종업원들은 그룹별로 매월 2회이상의 모

임을 갖고 작업개선방안, 品質 향상, 원가절감, 환경개선등의 문제들을 협의하며 실현가능한 아이디어가 執行部에 제출, 공장새마을과제로 채택돼 실시된다는 것이다.

## 大的인 厚生福祉 施設확충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위한 운동이다. 工場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다. 企業의 經營목표를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企業主나 종업원이 다함께 잘 살자는 것이 工場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다.

보다 잘 살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이 없으면 工場새마을운동은 성공할 거들 수 없다. 오늘의 괴로움은 내일의 희망이 있을때 쉽게 극복된다.

工場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會員業體들은 무엇보다 종업원들에게 새마을운동을 통해 보다는 생활을 영위할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종업원들의 厚生福祉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로 얻어진 財源을 給料 인상이나 각종 厚生福祉시설의 확충에 투입,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다.

厚生福祉의 향상은 바로 工場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수행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되어 끝없는 相乘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工場새마을운동의 經濟의 성과를 종업원들의 福祉 厚生에 돌리는것은 물론 企業主나 종업원들이 福祉 厚生증진에 먼저 힘을 기울여 工場새마을운동에의 열성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A會員社를 비롯한 상당수 업체가 새마을장학금을 마련, 종업원자녀들에 지급하는 한편 종업원 持株制度를 크게 확충, 모든 종업원이 企業 주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

## 불우 이웃 돕기 運動 展開

지금 우리 社會엔 진통적인 相扶相助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社會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人情이 각박해진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팽배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생활에 쫓기고 있다는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개되고있는 새마을운동은 바로 사라져가는 相扶相助정신을 되살리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이웃 및 동료간에 서로 돕고 사는 和氣찬 社會풍토를 조성, 다같이 잘 살자는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이 발전하고 있다.

職場단위로 펼쳐지고있는 工場새마을운동도 예외일수는 없다

효율적인 工場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會員業體들은 한결같이 그 어느 業種의 業體보다 이웃돕기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다.

職場內的 불우한 동료들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것은 물론 이웃마을이나 기타 外部의 불우한 사람을 돕고 國土防衛등 고된 일을 하고있는 사람들을 위로 격려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工場새마을운동을 통해 總和체제 구축과 명랑사회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목표아래 불우이웃돕기를 주요 課題의 하나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불우이웃돕기운동의 하나로 매년 秋夕과 설날이면 관계기관에 각종 자체생산물과 밀가루, 연탄등 생필품을 기증하고 있으며 이웃 자매부락에는 각종 생필품등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업체들은 지난해만해도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자매기관등에 전달했으며 이 운동을 일시적인 운동에 그치지 않고 연중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 勞使협조 體制강화

工場새마을운동은 勞使協調體制 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會社가 잘되어야 從業員이 잘 살수 있고 從業員이 잘살아야 會社가 잘된다는 勞使일체의 분위기 조성은 바로 工場새마을운동의 核心課題이기도 하다.

經營者와 종업원이 다함께 잘 살자는 슬로건아래 상호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갖가지 계기 마련에 많은 業體들이 관심을 쏟고있다.

工場새마을운동추진에 따라 勞使協調가 가장 잘되고 있는 S會員社의 경우는 勤勞者들이 스스로 일을 더 하겠다는 호뜻한 광경까지 볼 수 있다.

지난 74년 세계적인 에너지파동의 여파로 S社도 營業성과가 예년에 비하여 다소 저조 했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會社측은 物價상승으로 인한 종업원의 생계低下를 보호하기 위해 대폭적인 賃金인상을 스스로 단행했다. 會社측의 고마운 처사에 勞組측은 勤勞者들의 자발적 봉사 근무에 會社측은 종업원의 厚生福祉에 더욱 더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그후 지금까지 S會員社 勞組는 勞使분쟁이란 생각할수도 없으며 勞使가 다같이 노력하여 會社수익을 올리고 늘어나는 收益을 종업원의 厚生福祉증진에 轉用함으로써 언제나 활기찬 職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 T會員社에서도 工場새마을운동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勞使協議會를 구성, 모든 勞使관계를 상호이해와 협조로 해결해나가고 있다.

勞使協議會는 그동안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상호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효율적인 협조체제강화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勞使協議會를 통해 해결되거나 새로 제안된 문제는 종업원의 처우 및 후생복지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

勞使協議會를 통해 매월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經營진은 종업원의 뜻을 항상 정확히 파악하고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빠짐없이 經營진에 전달함으로써 혼히 있을수 있는 勞使간의 대결의식은 자연히 사라지고 있다.

## 새마을銀行 운영으로 貯蓄증대

勤勉절약과 相扶相助는 아직도 세계 모든 나라의

으뜸가는 美德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古代부터 이 근면절약과 상부상조를 至善으로 간주, 널리 권장해오고 있으며. 과거에 추진됐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모든 社會운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공장새마을운동의 근본 목적은 공장내외의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 밝고 명랑하고 생산적인 공장을 만드는데 있다. 따라서 근면절약과 상부상조를 핵심사업의 하나로 선정, 그 기풍 振作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은 종업원의 근면절약은 공장내의 제반 낭비 요인을 제거케 해주고 상부상조가 잘되면 勞使협조와 인간관계가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전국의 주요 식품공장들은 이같은 근면절약과 상부상조의 기풍 振作방안으로 종업원貯蓄 증대사업을 채택, 새마을은행 설치등으로 다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 새 생활

쉬운것부터 착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제가 새생활운동이다. 출근시간을 종전보다 10분 앞당긴다든지, 早期청소를 한다든지, 합창단을 만들어 명랑하고 건진한 노래를 부른다든지 무엇인가 종전과는 다른 그러면서도 기업과 종업원이 다같이 더 잘되는 사업을 벌여보자는 사업이다. 따라서 그 事例나 內容이 업체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K會員社를 비롯한 각 會員에서는 새생활規範化운동으로 아침 朝禮와 체조, 걷기운동등을 벌이고 있다.

매일 아침과 正午 두차례씩 전종업원이 모여 체조를 하고 걸을때도 걸음을 빨리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기민한 동작을 습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매주 월요일에는 평일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朝禮를 하며 매주 토요일을 協業의 날로 제정, 종업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기도 하고 화단을 가꾸다든지 잡초를 제거토록 해서 종업원상호간의 협동정신을 향상시키고 있다.